

이슈 브리핑

① 이슈 요약

- ◆ 중국의 '25년 완성차 수입량이 48만대로 최근 16년 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, Lexus가 수입차 부문에서 강세
- ◆ BYD, 내수 둔화에 대응해 '26년 해외 판매 목표를 130만대로 상향하고 글로벌 생산 및 유통망 확대에 주력
- ◆ Chery, 중국-캐나다 간 관세 인하 합의 이후 캐나다 전기차 시장 진출 검토
- ◆ Renault,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 Ampere를 해체하고 본사 직속 조직으로 통합
- ◆ 인도, EU와의 FTA 체결에 따라 EU산 자동차 수입 관세를 쿼터 내에서 10%까지 인하할 예정
- ◆ 유럽의 '25년 신차 판매가 '24년 대비 2.4% 증가하며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전동화차가 성장을 주도

◆ 중국, '25년 완성차 수입 48만대로 최근 16년 간 최저치 기록

- 중국승용차협회(CPCA) 발표에 따르면 '25년 중국의 완성차 수입량은 48만대로 전년비 -32% 감소, '09년(42만대) 이후 최저치를 기록
- 특히 '25년 BEV·PHEV 수입이 전년비 각각 79%·52% 급감하며, 수입차 내 NEV 비중은 '24년 3% → '25년 2%로 감소
- 한편 수입차 감소세 속에서 Lexus는 전년비 3% 증가한 18.4만대를 판매하였는데, 브랜드, HEV 기술 신뢰도 등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

CPCA('26.1.26.) <https://bit.ly/49NFIJQ>

ChinaEVHome('26.1.26.) <https://bit.ly/4a7q9pN>

◆ BYD, 내수 둔화에 대응하여 '26년 해외 판매 130만대 목표 제시

- BYD는 '26년 해외 판매량 목표를 연간 130만대로 제시하였으며, 이는 '25년 104.6만대(추정치) 대비 24.3% 증가한 것
- 중국 내수 경쟁 심화 및 NEV 인센티브 축소 등의 정책 변화로 인해 성장세 둔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, 최근 BYD는 해외 시장 대상 신모델 출시, 해외 유통망 확장 등에 주력하는 상황
- 또한 동사는 증가하는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태국, 브라질 공장에 더하여 연산 15만대 용량의 헝가리 공장 가동을 '26년 상반기에 개시하는 등 해외 현지 생산을 확대할 방침

CnEVPost('26.1.24.) <https://bit.ly/4rdBXh9> SCMP('26.1.25.) <https://bit.ly/4qC92TT>

◆ Chery, 관세 인하 합의 이후 캐나다 시장 진출 준비

- 캐나다 The Globe and Mail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완성차 제조사 Chery가 캐나다 전기차 시장 진출을 검토 중
- 중국-캐나다 관세 인하 완화 합의* 이후, Chery가 캐나다 현지 인력 접촉, 신설 사무소 거점 검토, 자사 Omoda·Jaecoo 브랜드 유통망 구축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추진 중인 정황이 확인됨

* 해당 합의에 따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시 연간 4.9만대 쿼터 내에서 관세율을 100%에서 6.1%로 인하할 계획

The Globe&Mail('26.1.22.) <https://bit.ly/4q8nguW> Connectcre('26.1.26.) <https://bit.ly/4keY4I6>

◆ Renault, 전기차·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 'Ampere' 해체

- Renault는 조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전기차·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인 'Ampere'를 '26.7월부터 해체할 것임을 발표
- 시장 여건 악화로 '24.1월 Ampere의 기업공개(IPO)가 무산된 이후 별도 법인 유지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
- Ampere는 그룹 산하 '전기차·소프트웨어 첨단 엔지니어링 센터'로 재편되고, 프랑스의 제조 시설은 Renault 본사가 직접 관리할 예정

Reuters('26.1.21.) <https://bit.ly/3NLY6JD> Automotive News('26.1. 21.) <https://bit.ly/4afHxjF>

◆ 인도, EU산 완성차 수입 관세 10%까지 단계적으로 인하

- 인도-EU 간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에 따라, 인도는 EU산 완성차 수입 시의 관세율을 현행 70~110%에서 10%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,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5~10년 이내에 폐지할 예정
- EU는 인도에 연간 완성차 25만대 수출 쿼터를 확보하였는데, 그 중 16만 대의 내연기관차 관세는 5년 내 10%로 인하하되, 9만 대의 전기차 관세*는 10년 차부터 인하한다는 것이 관계자 전언

* 초기 단계인 인도 전기차 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하기 위해 별도 기준 적용

EU Commission('26.1.27.) <https://bit.ly/49Mf4eL> Bloomberg('26.1.27.) <https://bit.ly/4qGRohS>

◆ 유럽의 '25년 신차 등록대수 전년비 2.4% 증가

-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(ACEA)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'25년 신차 등록대수*는 잠정 1,327만대(전년비 +2.4%)로 집계되었으며, 이는 팬더믹('20~'22년) 종료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수치

* EU 1,082만대(전년비 +1.8%), EFTA 42.7만대(+13%), UK 202만대(+3.5%)

- 동력원별*로는 HEV가 신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, BEV·PHEV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ICE는 등록대수·비중 모두 감소

* '25년 신차 등록 비중: HEV 34.4%(전년비 +12.4%), BEV 19.5%(+29.7%), PHEV 9.6%(+33.4%), 가솔린 26.1%(-18.9%), 디젤 7.7%(-24%)

ACEA('26.1.27.) <https://bit.ly/4k6Zvlh>

Car Sales Statistics('26.1.27.) <https://bit.ly/4rokY5y>